

二. 서울 社稷壇 造營考

「國朝五禮儀」에 社稷壇이 造營되어 있는 形狀을 기록하고 있다.

五禮儀云社稷社土神 稷穀神壇在 都城內西文獻備考云 西部仁達城社在東 稷在西 兩壇各方二丈五尺 高三尺 四出陛各三級 壇飾隨方色 爨以黃土 社有石主 長二尺五寸 方一尺 刻基上 培其下半 當壇南陛之上 四門 同一 壇方二十五步以丈計之六尺爲步則 十五丈五尺用營造尺 繚以周垣 國社國稷神座 並在南北向 后土氏配國社 后稷氏配國稷 各在正位 之左 近北東向

이들 施設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壇과 壇와 周垣으로 구분된다.

同書의 「社稷壇圖」에는 社·稷壇 밖의 壇에는 四方에 壇門이 열려 있고 周垣에는 紅箭門과 神門이 설비되어 있으며 壇의 西南隅에 神室一棟이 있다.

周垣의 서편에 따로 一郭이 형성되어 있다. 東門을 들어서면 樂器庫·神廚·宰牲亭·祭器庫와 우물이 있다.

壇·壇의 主郭과 樂器庫 등의 副郭으로 社稷壇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別途로 神門의 東北으로 社稷署의 官衙建物群이 있다. 이는 「社稷署儀軌」卷首에 있는 「社稷署全圖」에 그려져 있으며 安香廳을 중심에 둔 一郭의 形成이다.

安香廳은 南向하였다. 그 앞마당엔 큰 소나무 한 그루가 서있고 그 左右에 東西로 부속建物이 각각 一棟씩 있다.

南쪽으로 積面壁이 三基 品字形을 이루면서 排設되어 있으며 그 南쪽에 中門과 月廊이 있다. 安香廳의 西北엔 南向한 遮帳庫와 東向한 祭器庫가 있다.

中門 밖에 東向한 大門이 있고 大門에서 남쪽으로 더 나아가면 樂工廳과 部長直

所 各 一棟이 있다.

社稷壇과 社稷署로 크게 大別하여 造營物들을 살필 수가 있다. 「國朝五禮儀」나 「社稷署儀軌」의 기록에는 建築物 形狀 大小에 대한 分明한 기록은 없어 全貌를 충분히 밝혀 내기가 어렵다.

여러 資料들을 모아 겨우 윤곽을 알아낼 수 있는 정도이다. 조사된대로 살펴 본다면 대략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1. 社壇과 稷壇

「國朝五禮儀」에서는 社와 稷壇을 나누어 二壇으로 各置하는데 各壇은 正方形의 平面이며. 그의 一邊長은 營造尺으로 二丈 五尺이다. (이 길이를 現存하는 遺構에서 實測하여 보면 同書의 營造尺은 31cm이다.)

同書의 度之制에서 「十尺爲丈」이라 하였으므로 25尺이 된다.

兩壇의 높이는 「3尺」이다. 지금 地表에 變動이 있겠으나 實測值로는 대략 98cm이다. 壇의 규모 實測直는 遺構現況 편에 수록한다.

兩壇의 사방 중앙에는 섬돌이 설치되었는데 五禮儀에는 「四出陛 各三級」이라 하여 발 딛고 올라서는 디딤돌이 세 벌로 된 층계임을 알 수 있다.

현재는 이 계단이 모두 毀失되어 그 크기를 測定할 수가 없다.

이 石陛 三級에 關하여는 五禮儀에도 數値가 明記되어 있지 않아 그 規模를 알 수 없으며, 다른 資料에도 또한 記錄이 없이 배치된 위치만이 그려져 있다.

世宗14年(1432)에 禮曹에서 壇의 構造를 두고 建議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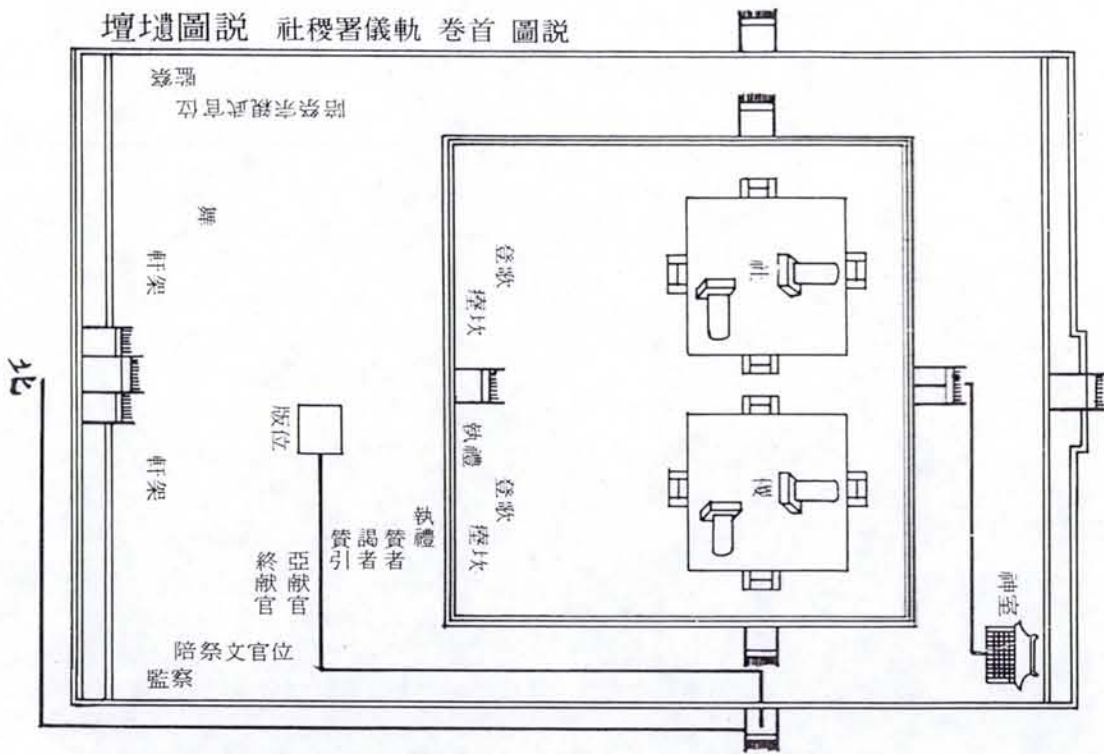
「壇의 넓이가 25尺됨은 전체의 넓이인데 壇에는 階層을 두고 만들어야

하므로 下層 基部는 그 길이가 29尺은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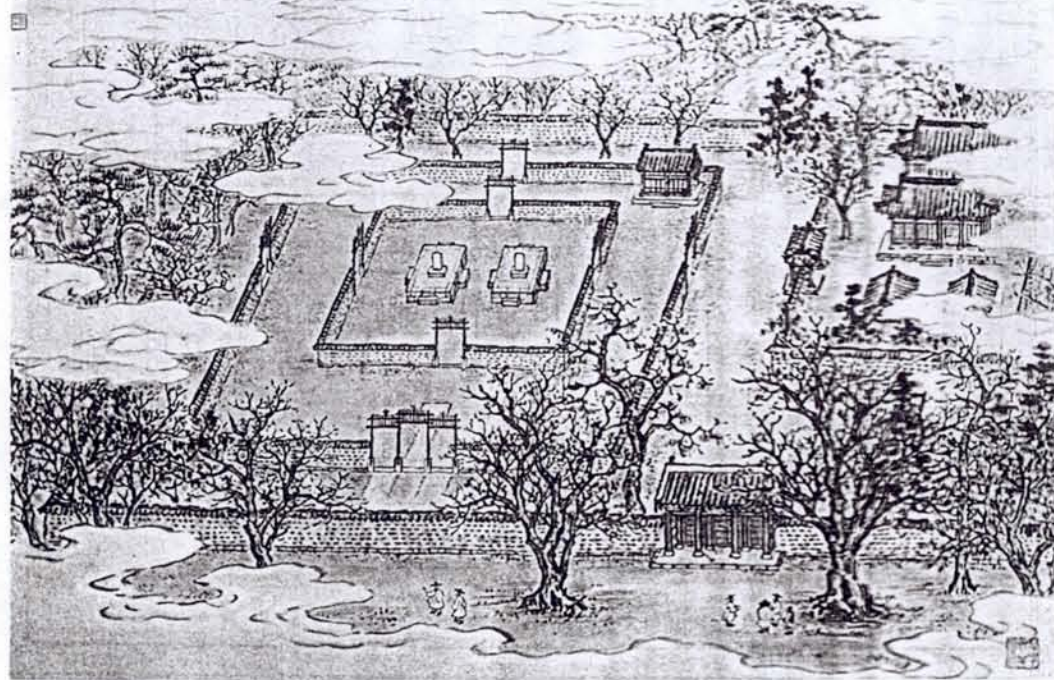
이 建議는 容납되지 않았던듯 하다. 현재의 壇이 그렇게 階層을 이루지 않은 채 垂直으로 되어 있고 또 29尺으로 되어 있지도 않다.

社와 稷壇과의 間격은 五尺이다. 世宗14년에 이 문제도 거론되었다. 五尺은 너무 가까우니 二十五尺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지금도 5尺의 間격을 지

壇圖說 社稷署儀軌 卷首 圖說



社稷壇圖說 社稷壇圖說



謙齋 鄭歡이 18세기 초에 그린 社稷壇圖 (사진으로 보는 서울百年 : 서울시 刊에서 轉載함)

니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역시 이 문제도 용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壇上에는 黃土를 깔았다. 社壇에는 石主가 一基 있다. 그 길이는 「二尺五寸」이다. 이는 兩壇의 一邊長 二十五尺의 1/10에 해당되는 수이고 兩壇 사이의 간격인 「5尺」의 1/2에 해당한다. 一邊長 25尺은 「五尺」의 五倍인 점에서 이들의 基本單位數는 “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五」는 宇宙生成의 中央數이며 河圖 洛書의 中央數와 一致한다. 五는 半天의 數이며 五方과 五行의 基本수가 된다. 五의 十倍 五十은 大衍의 數이기도 하다.

石主의 모양은 方形이며 그 一邊은 一尺이고, 머리부분을 깎아 圓形으로 하였고 아래도리를 땅 밑에 묻어 두었다.

社와 稷壇 둘레에 낮은 담장을 둘렀다. 이를 壇라 부른다.

2. 壇와 壇門

壇의 平面도 正方形이다. 그 一邊의 길이는 二十五步라 기록되고 있다. (五禮儀) 길이 25步에 대해 五禮儀에는 「以丈計之六尺爲步 則十五丈也 尺用營造尺」이라 설명하고 있다. 二十五步는 營造尺으로 150尺이 된다.

지금 담장은 없어졌으나 그 基址石만 남아 있어 一邊長만은 알 수 있다.

實測을 하여본 바는 다음 表와 같다.

(단위 m)					
	東邊長	西邊長	南邊	北邊	平均値
壇長	31.01	31.30	30.66	31.10	31.017

壇의 四方 中央에 門이 열려 있어 壇門이라 부른다. 壇門址도 柱礎와 門地枋石과 地臺石들만이 남아 있다. 壇門의 넓이까지를 포함하여 壇의 一邊長이 二十五步이었다.

都城의 郊外에는 「風雲雷雨山川城隍壇」을 비롯하여 「先農·先蠶·雪祀·嶽海瀆壇」들이 있었다. 各壇은 一邊長이 二十三尺이고 高가 二尺七寸으로 社稷壇의

二十五尺 高三尺보다는 적다.

또한 靈星壇과 老人星·馬祖 등의 祭壇도 있었다. 이들 壇의 一邊長은 二十一尺이고 高가 二尺五寸이어서 社稷壇보다는 그 規模가 작았다. 二렬에도 불구하고 壇의 길이는 二十五步의 같은 수를 사용하고 있다.

「二十五」라는 수에 의미가 있었기 때문인 듯하며 25는 5에 5를 곱한 수가 되기도 한다.

壇는 灰牆이라고도 부르는 형상이었다. 18세기에 그려진 謙齊 輿圖의 「社稷壇圖」에 의하면 그 담장은 기와를 이은 맞담의 모습이다. 日政期에 촬영하여 「朝鮮古蹟圖譜」에 수록한 사진에 따르면 역시 담장은 맞담의 모습으로 보이나 屋蓋部는 기와이음이 아닌 옥개塼으로 보인다.

이 맞담인 灰牆의 修改가 여러차례 있었다.

「社稷署儀軌」卷四에는 英祖 1年(1725) 2월에 「東邊灰牆修改」라 기록하였고 영조20년(1744) 7월과 영조27년(1751) 3월에도 修改가 있었는데 이 때의 기록에는 「南壇門灰牆修改」라 하여 壇門 좌우의 담장을 灰牆이라 하였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영조29년(1453)엔 8월에 神室의 西內牆과 함께 南灰牆을 修改하고 영조30년(1454) 3월에는 神室의 雨漏處와 함께 灰牆의 修改가 있었다.

이들 기록 중에서 特히 注目되는 사항은 숙종 6년(1680) 4월에 「壇門甃牆修改」하였다는 기록이다. 「甃牆」이란 단어가 보인다.

肅宗 때에 甃牆이던 것이 영조 때에 이르러 灰牆이 되었는지 아니면 灰牆이란 구조물 속에 일부분이지만 甃이 사용되고 있어 때로 甃牆이라고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더 밝힐 수 있는 자료가 현재로선 없다.

이번 調査에서 甃片이 더러 수습되었다. 바닥에 까는데 사용된 것과 담장에 사용되었던 두 가지 유형이 검출되고 있다. 殘存하는 基址石 일부에 甃片이 混在하여 있기도 하다. 이로 보아 담장에 甃材가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謙齊의 그림에는 甃築한 듯한 형상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南漢山城의 성가퀴 등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甃材의 사용이 그 시대에 있었으므로 甃牆의 存在를 이해할 수 있으며 숙종 6년의 기록은 수긍이 된다.

壇門은 「國祖五禮儀」나 「社稷署儀軌」의 圖說이나 謙齊의 「社稷壇圖」와 「朝鮮古蹟圖譜」에 수록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紅箭門形이다. 그러나 儀軌에서는 그것을 紅箭門이라 하지 않고 壇門이라고만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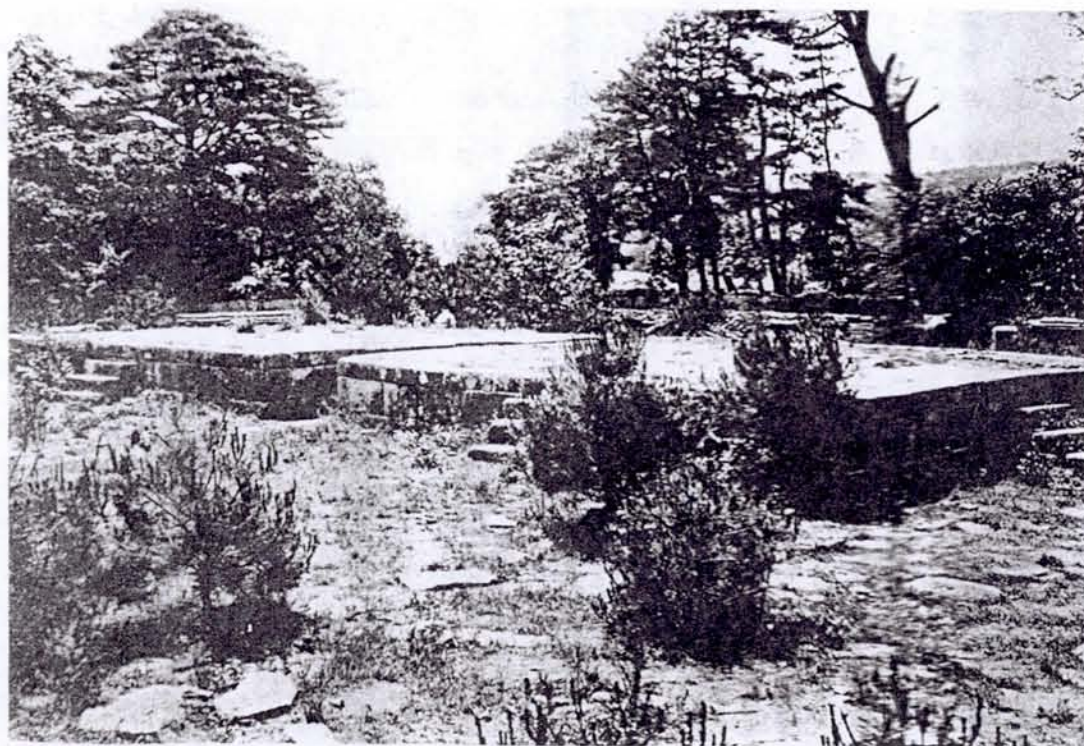
同書에 표기된 紅箭門은 壇外郭의 담장에 열린 문에 세운 것을 일컫는 이름이다. 이런 구분은 景宗 4年(1724)의 기록에서도 알아볼 수 있다.

「2월에 東紅箭門을 修改하고 4월에는 東南壇門을 修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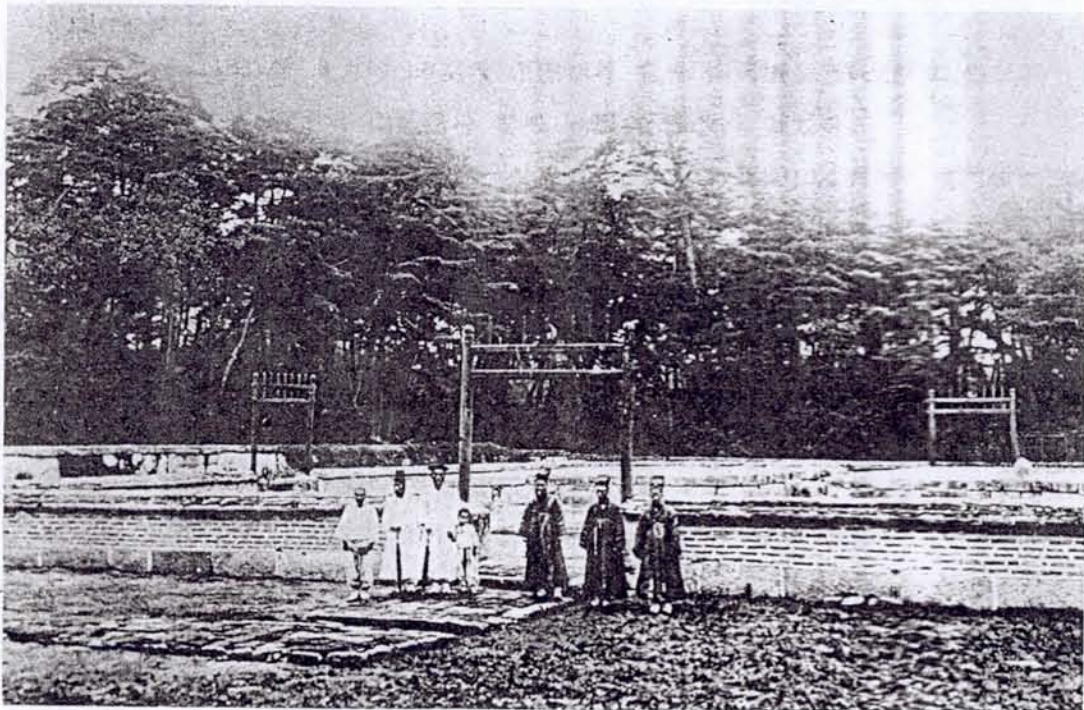
紅箭門과 壇門을 분명히 나누어 부르는 개념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殘存하는 壇門址엔 홍살문 세웠던 柱礎와 문지방과 댓돌과 문 옆 담장의 石材 등도 더러 있다.

이들에 대하여는 儀軌 등에 전혀 언급이 없으므로 遺構를 통하여 그 形狀을 살필 수 밖에 없다.



「朝鮮古蹟圖譜」(1931年刊)에 수록된 社稷壇(上): 四陸와 數石은 現無함. 南쪽 壇垣과 塙門·神道の 모습(下)



3. 塙과 紅箭門

「國朝五禮儀」나 「社稷署儀軌」의 圖說 또는 謙齋 筆의 「社稷壇圖」에 보면 塙門과 灰塙 밖으로 담장이 또 있다.

이 담장을 儀軌에서 塙이라 불렀고 출입문을 紅箭門이라 하였다. 紅箭門은 塙門과 마찬가지로 四方에 있는데 北門만은 紅箭門이라 하지 않고 北神門이라 불렀다.

北神門은 다른 紅箭門과는 구조된 모습이 전혀 달라 홍살문이 單門인데 神門은 三門形이다. 마치 牌門처럼 된 형상이다.

儀軌에 기록된 塙과 紅箭門에 歷代 修改한 사실을 발췌하여 보면

- 顯宗 1년(1660) 6月 紅箭門 修改
- 肅宗 13년(1687) 7月 塙垣 修改
- 肅宗 14년(1688) 윤 7月 北神門 修改
- 肅宗 18년(1692) 5月 紅箭門 修改
- 肅宗 36년(1710) 5月 塙塙 修補
- 肅宗 38년(1712) 2月 北神門三間 修補 改建
- 景宗 4년(1724) 2月 東紅箭門 修改
- 英祖 13년(1737) 11月 塙塙垣 外 山脉頽缺
- 英祖 17년(1741) 3月 紅箭門 門隻 修改
- 英祖 22년(1746) 7月 神室 南塙 修改
- 英祖 25년(1749) 9月 神門 西挾 槩木修改

이상의 기록 외에도 더 있다.

「社稷署儀軌」 卷首의 「壇塙圖說」에 보면 「國朝五禮儀」에서 느끼는 것보다도 北塙門과 北神門 사이의 간격이 아주 넓다.

또 北塙門과 北神門 사이에 版位가 있고 그 版位에서 굵은 線으로 西紅箭門까지 굿고 다시 西紅箭門에서 北神門 밖에 이르기까지 그 線은 계속된다. 神路나

御路로 이해되는 선이다.

넓은 터와 여기에 중요도로가 있어야 할 까닭이 주목된다.

「社稷壇圖」와 「壇壝圖說」에 보면 中央의 版位 옆으로 執禮, 贊者, 謁者, 贊引과 약간 떨어져 亞獻官 終獻官 進幣爵酒官 薦俎官 奠幣爵酒官이 있고 그 뒷줄에 여러 執事者들과 陪祭文官들이 늘어서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일대가 상당히 넓은 터전을 확보해야 하였던 것은 祭儀에 할당하는 관원의 수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임금이 親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관들이 여기에 반열하였었다.

親祭 亞獻官：王世子, 終獻官：領議政 有故則次官, 進幣爵酒官：吏曹判書, 薦俎官：戶曹判書, 奠幣爵酒官：吏曹參議, 典祀官：奉常寺正, 執禮二：壇上三品, 壇下四品, 壇司：社稷署令, 四位大祝各一：四品以上, 祝史各一：四品, 齋郎各一：五品, 執奠各一：六品, 捧俎官各三：參外, 掌性令：典性署主簿, 協律郎：掌樂院官, 爵洗位：六品, 盥洗位二：六品, 亞獻官 盥洗位：參外, 終獻官盥洗位：參外, 贊者二：通禮院官, 謁者二：六品, 贊引二：六品 參外, 監察二 禮儀使：禮曹判書, 近侍四：承旨, 左右通禮：禮儀使以下應奉官, 奉禮：王世子侍從官

이들과의 맞은편 자리에 陪祭宗親과 武官들이 시립하고 그 뒤에 監察이 있다. 監察은 이쪽 편인 祭文官位 뒤편에도 자리하고 있다.

이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에는 여러 단계의 사전준비를 거쳐야 한다. 祭를 올리기 8일 前에 禮曹에서 齋戒에 들시기를 아뢴다.

散齋를 나흘동안 別殿에서 치루어야 하고 이틀을 正殿에서, 하루를 齋宮에서 致齋하여야 한다. 이 散齋기간 중에는 吊喪하지 않으며 疾病을 말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고 설혹 죄인을 죽여야 할 일이 있더라도 이 기간엔 아뢰지 않아야 한다.

제례 드리기 이레 전날, 行事 執行官을 비롯하여 제례에 참여할 宗親 文武百官들은 公服을 입고 새벽에 議政府에 모여 誓戒를 한다.

今年某月某日 殿下祭于社稷 凡行事執事官及陪祭宗親文武百官不縱(即飲) 酒不茹葷(葱非 蒜薤) 不吊喪問疾 不聽樂 不行刑 不判署刑殺文書 不預穢惡事 各揚其職 其或有違國有常刑

여러 제관과 참여자들이 제 위치에 반열한 상태에서 엄숙하게 이 서약문을 크게 낭독하고 끝나면 크게 따라 하고 再拜를 한다. 그리고 나흘동안의 散齋에 드는데 각자의 집 正寢에서 지내고 나머지 사흘은 致齋하는데 이들은 本司에서, 하루는 祭所에서 보낸다.

임금이 齋戒하는 동안 社稷壇에 거동할 자비를 마련한다. 司僕寺正은 小輿와 大輦을 준비하여 殿庭 中道에 차례대로 놓고 御馬를 中道에 대령한다. 임금이 때가 되어 乘輿하고 출발하면 還內繖扇侍衛들이 如來儀하여 引儀分引하면 이어 諸享官과 宗親 및 文武百官들이 뒤를 따른다.

이보다 앞서 社稷壇에서는 제사날 사흘 전에 典設司가 大次(큰 차일)를 壇의 西門 밖 外道에 설치한다. 북쪽에서 南向하도록 치고 侍臣들의 차일은 大次 뒤쪽에서 南向하도록 친다. 王世子の 次는 大次的 西南쪽에서 東向하도록 설치된다. 諸祭官들의 次는 齋坊內에 있고 陪祭官次는 그 앞쪽에 자리잡되 隨地之宜한다.

이틀 전에는 壇司帥가 사람들을 시켜 掃除壇之內外하고 典設司에서는 西門밖에 饌幔을 설치한다. 典樂帥는 登歌之樂을 위하여 壇北에 軒架를 위하여는 北門內에서 南向하도록 준비한다.

하루 전날 典祀官은 壇司와 各帥들을 거느리고 각기의 소임을 점검하도록 하고 國社·國稷神座를 各壇에 안치하되 壇上에서 南方에 두어 北向하도록 한다. 后土氏神座는 國社神座의 좌측에 后稷氏 神座는 國稷神座의 왼쪽에 두되 모두 東向시킨다.

殿下가 자리잡을 版位는 北門內의 當壇 앞에 만들되 南向하게 한다. 飲福位는 國稷壇上 神座의 東北에 위치하게 하되 역시 南向하도록 마련하여 둔다.

御駕가 齋宮 大門 밖에 이르면 左通禮가 降輦乘輿하시기를 아뢴다. 대문 밖에 좌우로 도열한 鹵簿를 두고 通禮院의 前導를 받아 東門으로 들인다. 王世子 引

儀分引諸祭官과 陪祭官들은 集齋宮之南하는데 文班은 동쪽에 武班은 서편에 선다.

제사 하루 전에 執禮는 임금의 친히 牲器를 살필 수 있도록 준비한다. 壇의 西門 밖에 牲令位와 大祝位를 만들고 殿下省牲位는 壇西門外 가까운 자리에 南쪽에서 北向하도록 마련한다.

당일에 임금은 遠遊冠에 絳紗袍를 갖추어 입고 通禮의 前導에 따라 서문 밖에 이르면 通禮는 執圭하시길 아뢰고 近侍는 무릎을 꿇고 圭를 바친다. 임금은 執圭하고 北陞로 해서 省器位에 나아간다. 祭日 丑前五刻 神位版을 드셔 나오는데 西陞를 이용한다. 三刻 前에는 모두가 정해진 제자리에 나아가 대기한다. 一刻 前에는 殿下 具冕服하고 翁위를 받으며 西門 밖에 이르면 近侍가 圭를 바친다. 殿下는 入自正門하여 詣版位하여 南向하고 선다. 드디어 祭가 시작된다.

까다로운 절차에 따라 禮儀가 진행되고 大祝이 나가고 笾豆가 撤去되고 登歌로 아뢰는 雍安之樂도 끝나면 임금은 마지막으로 四拜를 드리고 물러나 大次로 돌아가 冕服을 벗는다.

巫獻官은 望瘞位에 나아간다. 北向하고 서면 執禮帥 贊者는 東向하고 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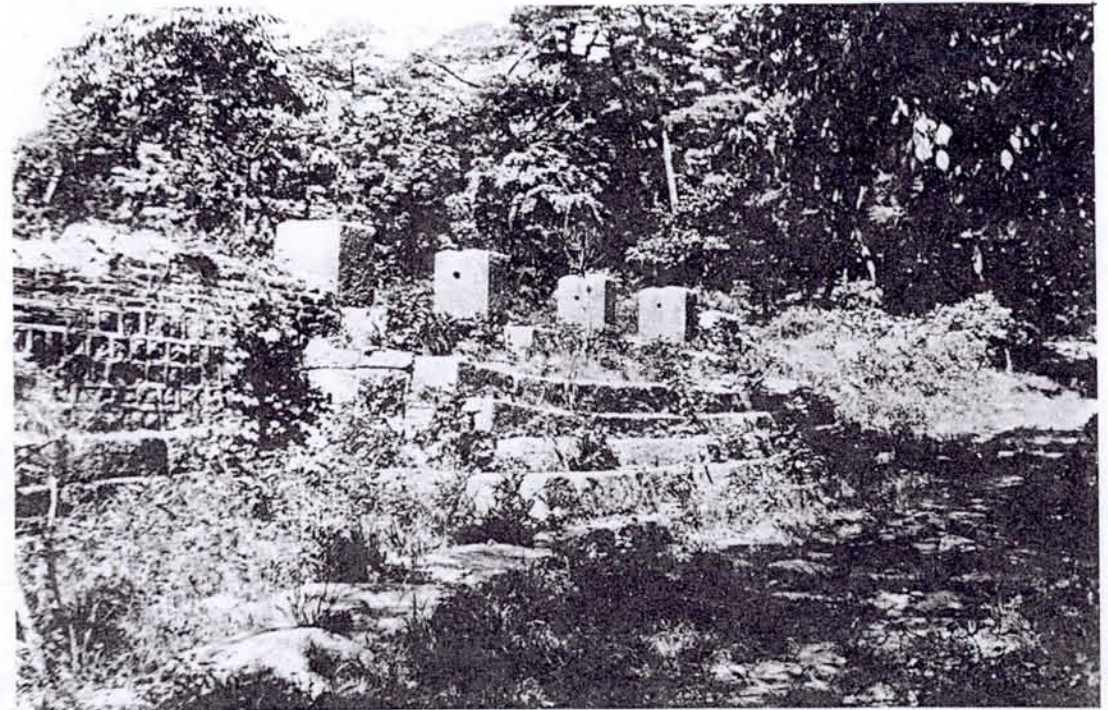
「諸大祝 取黍稷 飯籍曰白茅束之以篚 取祝版及幣 各由其階降壇 置於坎」 이때에 執禮가 可瘞置土半坎하라 하면 壇司 監視 아래 奉禮한다. 이 일이 끝나면 비로소 모든 祭官들은 물러난다.

祭儀가 끝나면 임금은 대략 三刻 정도 더 머물다가 還宮하게 된다. 親祭가 거행되는 동안 神門과 西紅箭門과 神門內의 넓은 터전이 요긴하게 이용됨을 알 수 있다. 神路가 이쪽에만 설치된 까닭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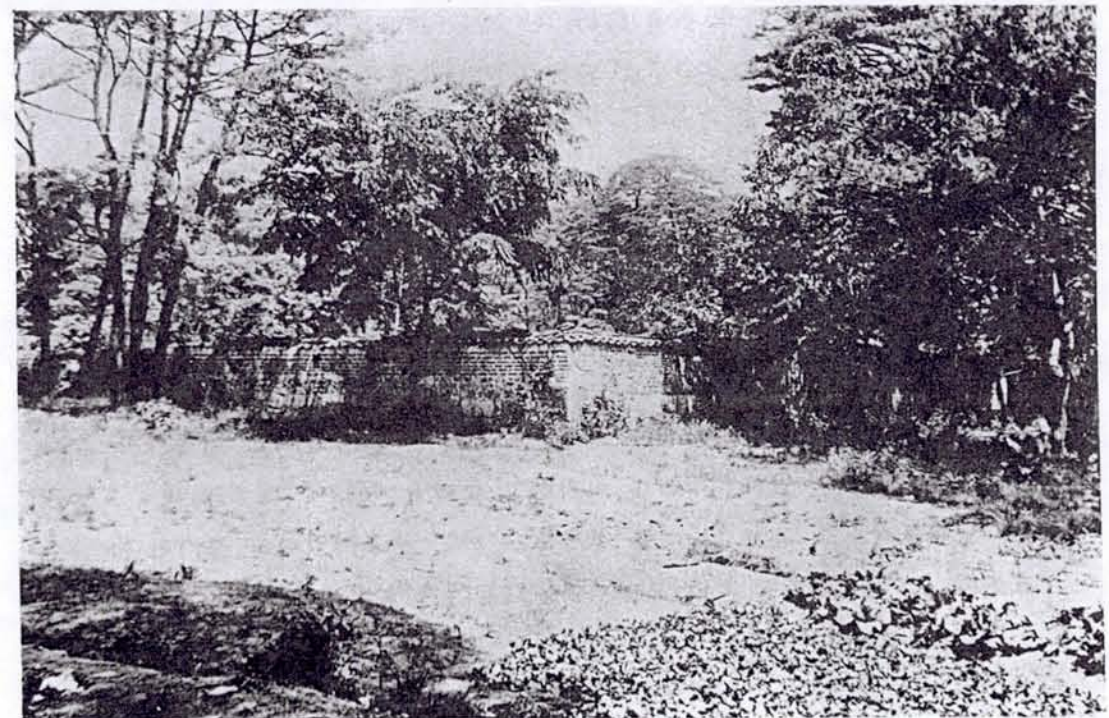
「國朝五禮儀」의 社稷壇圖에서 注目되는 또하나의 부분은 紅箭門과 壇門과의 구조에 차이가 있는듯이 표현되어 있는 점이다.

壇門은 사진이나 그림에서 보듯이 陵域 등에서 볼 수 있는 홍살문 그것인데 여기의 紅箭門에는 문짝이 달렸었던 듯한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이다. 壇門과는 그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이 문제는 項을 바꾸어 北神門條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朝鮮古蹟圖譜」에 수록된 北神門址의 모습(上)과 周垣의 모습(下)



4. 北神門과 神道, 版位

현재 地表上에는 神路의 흔적을 남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탐석 트렌치를 넣어보았다. 일부에서 약간의 遺構가 들어났는데 그 형상과 실측치는 현황편에 상술한다.

北神門도 그 遺址를 남기지 않았으나 門에 오르던 石階가 일부 남아있는 듯한 감을 그 위치에서 볼 수 있다. 요즈음 造成된 階段石 중에 古材들이 섞여 있다.

「國朝五禮儀」의 社稷壇圖에 보면 北神門이 있는 부근의 담장은 좌우보다 꺾이어서 안으로 들어간듯이 표시되어 있다.

그림에서는 南紅箭門도 그런 꺾인 담장에 이어져 있다.

현재 南門址에서는 잘 모르겠으나 北神門의 자리는 분명히 左右의 담장보다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朝鮮古蹟圖譜」에 수록된 1930年 初의 사진에서 보면 周垣 外緣에 맞추어 紅箭門柱 礎石 外緣을 두도록 門柱를 세우고 階段石은 담장과 그 基址石 외부로 완전히 突出되어 설치되어 있다. 北神門址에는 더 이상의 遺構가 없다.

北神門은 三門形인데 솟을三門形이라 할 수 있다. 가운데 칸이 넓고 좌우 협간이 좁은 三門으로 매門마다 문얼굴을 내고 문짝을 달았다.

西紅箭門에 해당하는 곳에서 일부 遺址가 남아 있어 實測 조사되었다. 門地枋石도 있으며 그 중앙에 문짝이 닿던 遠山이 만들어졌다. 문지방의 存在는 문얼굴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英祖 17年(1741) 3月의 기록에 「紅箭門 門隻修改」라는 내용에서 그것의 실재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의지하고 문짝을 다는데 그 門짝의 모양은 下部를 당판문짝으로 하고 그 위를 살창으로 하는 구조이었다고 생각된다.

「五禮儀」의 문짝표현도 그런 모양이다. 紅箭門과 神門의 모습을 그렸다. 神室의 문짝도 대략 이런 모습이었다고 생각되는데 肅宗 3年(1677) 3月의 기록에 神室의 문짝을 고치는데 「板箭改以 細箭合閣」하였다고 하였다. 살대의 무늬를

가늘게 만드는 고급스러운 것으로 바꾸었다는 내용으로 이해된다.

版門에 살창을 낸 類例는 宗廟나 宮室建築에서 더러 볼 수 있고 水原의 華寧殿에서도 발견된다. 殊異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版位는 「國朝五禮儀」에 一位뿐이다. 北壇門과 北神門의 사이에서 약간 壇門에 가깝게 배치되어 南向하도록 설치되었다.

현재 遺構나 遺址를 찾을 수 없고 또 儀軌에도 그 모양과 크기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없어 明確한 것은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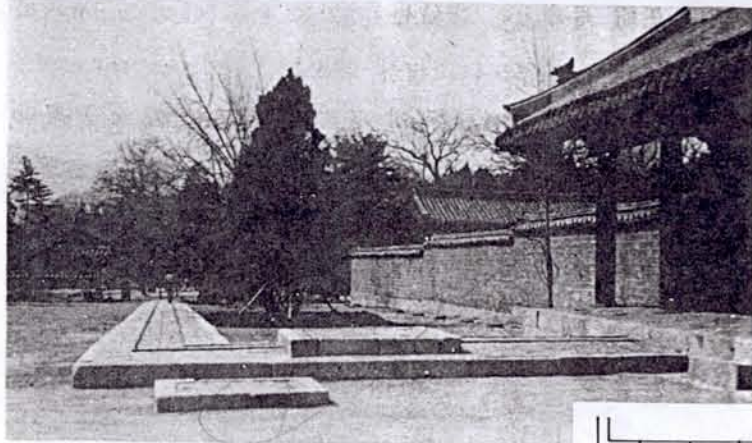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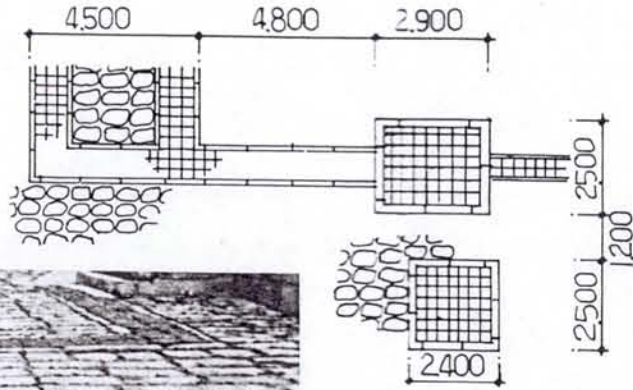
現存하는 版位는 宗廟에 있다. 王과 王世子の 것이 있다.

東門 밖에 있고 또한 正殿 月臺上에도 있는데 社稷壇의 版位도 이와 大同小異하리라고 믿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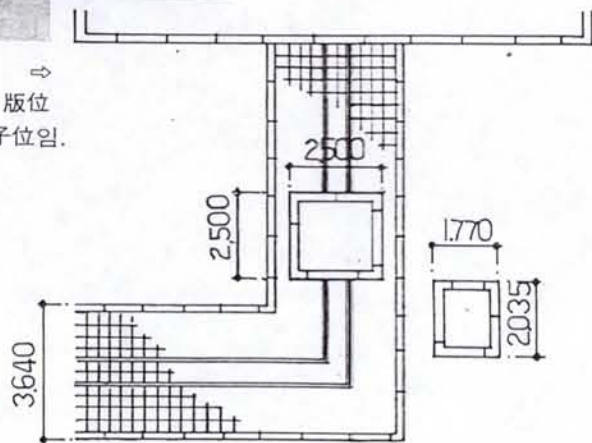
宗廟의 版位규격은 東門 밖의 版位가 一邊 2.5m의 正方形으로 화강석 갓돌을 두고 바닥은 전돌갈기(현재는 모래만 깔려있음)로 神道の 바닥보다 약 21cm 가량 높게 돌출되어 솟아있다. 正前 月臺上의 版位는 가로 2.9m, 세로 2.5m, 화강석 갓돌에 바닥은 전돌을 깔았다.

東門 밖의 版位는 神道の 幅보다 좁게 神道 위에 올려져 있고 正殿 月臺의 版位는 版位の 中心部에 좁은(幅77cm) 神道가 연결되어 있다.

宗廟正殿月臺 위에 있는 神道와 版位.
神道 옆에 別置된 것은 王世子位임.
同 사진 ↓



宗廟東門 밖에 있는 神道와 版位
神道 옆에 別置된 것이 王世子位임.
위는 그 사진



5. 神室

「社稷署儀軌」卷首의 「壇壝圖說」에는 南壇門에서 神室에 이르는 사이에도 神路가 있었던듯이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國朝五禮儀」나 謙齊筆의 「社稷壇圖」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神室의 遺構는 지금도 남아있다. 두벌대의 基壇石과 柱礎石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基壇 前面쪽으로 2級의 階段石이 있다.

그 세부實測値는 遺構現況편에서 詳述하고자 한다.

神室은 歷代에 계속 修改되어 왔음이 「社稷署儀軌」에 기록되어 있다. 그들 중에서 사항이 서로 다른 몇 가지 예를 추려보았다.

- 孝宗 10년(1659) 3월 神室雨漏處 葺簾修改
- 顯宗 2년(1661) 4월 神位方席 修改
- 顯宗 4년(1663) 4월 神位櫺 改漆
- 顯宗 7년(1666) 3월 神位櫺塗排 及 改漆
- 顯宗 7년(1666) 7월 神室龍頭 改修
- 顯宗 11년(1670) 윤 2월 神室牆垣 及 臺石 修改
- 顯宗 13년(1672) 4월 神室地衣 及 奉安櫺 修改
- 顯宗 14년(1673) 4월 神室仰壁 修改
- 肅宗 2년(1676) 9월 神座方席 修改
- 肅宗 3년(1677) 3월 神室門板箭 改以 細箭合閣
- 肅宗 8년(1682) 6월 神室椽頭 修改
- 肅宗 9년(1683) 8월 神室丹青 修改
- 肅宗 11년(1685) 4월 神室龍頭 及 瓦子 修改
- 肅宗 14년(1688) 5월 神室東西椽 修改
- 肅宗 28년(1702) 정월 神室樑上 塗灰 修改
- 肅宗 29년(1703) 9월 神室盖瓦 修改

- 肅宗 31년(1705) 7월 神位床卓 修改
- 肅宗 34년(1708) 7월 神室塗灰 修改
- 肅宗 38년(1712) 2월 大國社稷神室 四面菴簾 皆裂
- 英祖 9년(1733) 5월 神室椽上 塗灰 及 位版紙匣 修改
- 英祖 16년(1740) 6월 神室內 地衣 蘆簾 修改
- 英祖 16년(1740) 10월 神室前簷蓋瓦 及 門隻 修補
- 英祖 17년(1741) 10월 神室女防草瓦 及 菴簾 修改
- 英祖 41년(1765) 5월 神室瓦子墮落 及 木只盖板 修改
- 英祖 46년(1770) 6월 神室鋪陳 及 菴簾 修改

肅宗 20年(1694) 10월에는 神室의 改建이 있었다. 儀軌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神室改建 位版移安於安香廳(左右房舍 位版 及 香祝) ——中略—— 壬辰
亂後 制度狹窄 既難周旋 且其材木腐朽 有頽壓之慮 行告祭仍爲撤毀 舊室
恢拓基址 改以新材室之長廣比前加三尺五寸 以五椽閣造成(卷三 및 卷四)

이들의 기록과 남아있는 遺構와 相合시키면 그 대략의 모습을 알아낼 수 있다. 基壇石은 두벌대이고 前面 北쪽으로 陸石이 있었다.

柱間은 四面이 單間이다. 肅宗 20년에 改建하면서 長廣의 柱間을 3.5尺씩 늘렸다고 하였는데 지금의 간살이가 이렇게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당초엔 지금 遺址보다 3.5尺만큼씩 적었다고 할 수 있다.

謙齊 筆의 「社稷壇圖」에는 神室이 正面 2間 측면 單間인듯이 묘사되고 이런 平面 위에 맞배지붕을 하고 左右에 防風板을 단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 그림은 조금 모호하다. 現存하는 遺構로는 長方形 平面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肅宗20년의 改建에서 長廣을 같은 수 3.5尺으로 增廣시킨 것은 正·側面 길이에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柱間의 四面 중 정면(北面)에만 문짝을 달고 나머지 三壁은 砂壁을 하여 맞벽을 쳤다. 그리고 粉壁하여서 기록에 「神室塗灰 修改」(肅宗34년 7월)라고 보

인다.

앞쪽 柱間에 문얼굴을 만들고 四分閣을 만들어 달았는데 그 분합문짝은 당판 문짝 윗도리에 살창을 끼우는 모습이었다.

숙종 3년(1677) 3월에 「神室門板箭改以 細箭合閣」이란 기록이 있어 알아낼 수 있다.

바닥엔 方搏을 깔고 그 위에 地衣를 깔았다. 英祖16년(1740) 6월에 「神室內 地衣蘆簾修改」의 기록과 顯宗 13년(1672) 4월에도 「地衣 及 奉安櫬 修改」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 이외도 地衣에 관한 기록이 累見된다.

地衣나 蘆簾은 돛자리, 삿자리를 일컫는 말이며 이들은 맨땅에 깔 수 없는 성격의 것들이다. 그러므로 바닥은 포장되어 있어야 한다. 마루를 깔지 않을 바에는 方搏을 깔아 정리하는 수 밖에 없다.

神室에 마루를 깔았을 경우 보다는 方搏을 깔았을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실제 英祖 46년(1770) 6월의 기사에 「神室鋪陳」이란 文句가 있다. 鋪陳은 포장하였다고 해석한다면 敷搏하였음을 의미하게 된다.

架構는 肅宗20년(1694)에 改建하면서 「五椽閣」으로 造成하였다. 遺址에서 前退가 없는 규모이었으므로 架構는 간결한 것이었다고 알 수 있다.

五椽架의 架構는 구조상 지붕을 사모지붕으로 할 수 없다. 平面이 正方形이면 보통 사모지붕을 연상하나 神室의 경우는 五椽架임으로 구조상 이 평면의 지붕은 맞배일 수 밖에 없겠다.

謙齊 筆의 「社稷壇圖」에 神室의 지붕을 맞배로 그리고 합각에 防風板을 달았던듯이 묘사되어 있다. 이는 記錄과 부합되는 합당한 묘사이다.

肅宗 14년(1688) 5월에 「神室 東西椽 改修」는 맞배지붕일 때 좌우뿔목에 걸려있는 담벼락 밖의 서까래들을 고쳤다고 해석할 수 있음으로 역시 지붕은 맞배이었다고 할 수 있다.

처마는 흘처마이었다고 생각된다. 肅宗 8년 6월(1682) 기록에 「神室 椽頭 修改」가 있는데 椽頭는 처마 끝을 의미하므로 이 부분의 수리는 처마매기의 정리로 해석된다. 흘처마로 추정하는 까닭이 된다.

천장은 연등천장이었다고 생각된다. 顯宗 14년(1673) 4월에 「神室 仰壁 修改」

하였다는 기록으로 알 수 있다. 또 실제로 雨漏處의 修改가 자주 기록되어 있는데 奉審은 연등천정을 쳐다보는 일에서 雨漏處 發見이 쉬었을 것임으로 그렇게 자주 보수공사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공포의 모양이 어떠하였겠느냐의 의문에는 아무런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숙종 20년(1694)에 改建하였다면 이 시기의 凡常을 따랐을 것이다. 그리면서도 「壬辰亂後 制度狹窄」의 기록에서 前의 神室이 亂前부터 존속되어 오던 것이거나 亂後에 前代에 따라 重建하였던 것이라면 옛부터 이어오는 구조가 있었을 것이므로 改建에서 전혀 새로운 것의 채택은 없었으리라 이해된다.

社稷壇에는 當代의 建物인 正門이 남아있다. 비교적 亂前의 法式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注目되어 오고 있다.

神室도 이런 경향이 농후하였으리라고 해석하는 편이 합당하리라고 생각된다. 神室은 丹青을 하였다. 숙종 9년(1683) 8월에 「神室 丹青 修改」하였다는 기록 등에서 알 수 있다. 宗廟의 건물들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丹青을 하였으리라고 추정한다.

神室의 지붕에는 龍頭가 설치되어 있었고 또 암수막새를 장치하였다. 숙종 11년(1685) 4월에 「神室 龍頭 及 瓦子 修改」의 기록으로 알 수 있다.

지붕은 양성을 하였다. 숙종 28년(1702) 정월에 「神室 樑上塗灰 修改」의 기록이 있으며 「樑上塗灰」의 기록은 자주 보인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肅宗 20년 改建 以後에만 그 기록이 있고 그 이전엔 전혀 언급이 없다는 사실이다. 初期엔 없었던 것이 改建하면서 채택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謙齊 筆의 「社稷壇圖」에 神室엔 양성의 모양이 보이지 않는다. 이번의 調査에서도 瓦片은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

神室을 修改할 때엔 吉日을 擇하여 시공하도록 하였다. 「社稷署儀軌」卷五 故事下 正祖 十一年七月條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다.

禮曹社稷神室雨漏處修改吉日 令日官推擇則今七月十七日爲吉云草記 教曰 依所啓施行爲 此後修改如有移還安之舉 則本曹堂上一員 與本署提調眼 同監事定式.

神室에 對하여는 肅宗大王의 御製詩가 있다.

入東門望神室
回頭步輦望神室 懸幕連霄似白雲
蒼翠凌寒環擁立 萬年佳氣正氤氳

神室은 社稷壇의 건물 중에서는 가장 격조가 높은 것이었다고 해석된다.

6. 樂器庫와 祭器庫

社稷壇 西牆 밖 서편에 따로 一郭이 있다. 「國朝五禮儀」의 社稷圖에는 樂器庫를 비롯한 건물이 排設되어 있는 모습이 圖示되어 있다. 大祀에서 奏樂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太祖 4년(1395)에 奉常寺에서 社稷樂章을 제정하자고 아뢴 것도 祭儀에서 음악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세종 15년(1433)에 朴堧에 의하여 雅樂이 정리되면서 朝賀하고 祭儀하는데 아뢰는 음악은 새롭게 제정되었다. 「春官志」에 「朝祭初用雅樂」하였다는 표현이 그런 의도를 전하고 있다. 雅樂을 아뢰게 되므로 해서 지금까지의 女樂은 없어지게 되었다.

奏樂에는 樂器가 있어야 한다. 그런 樂器를 보관하는 곳이 樂器庫이다. 樂器庫는 三間이다. 「國朝五禮儀」의 社稷壇圖說에 壇 서쪽 일곽에 樂器庫·神厨·宰牲亭·祭器庫가 나란히 배설되어 있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 중의 樂器庫는 三間으로 표현되어 있다.

「社稷署儀軌」卷三 故事上 純祖三年 癸亥 十一月條에

落葉堆積處 偶然失火延及於 樂器庫三間 盡爲燒燼 樂器之未及搬出者亦多 被燒矣, 掌樂提調 待天明進詣奉審後 庫舍即爲改建 被燒樂器亦爲改備

라고 있어 樂器庫가 三間이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악기들이 얼마만큼 보존되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에도 奏樂되고 있는 바와 같은 그런 종류와 그만한 수의 악기가 당시에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樂器庫 三間은 그런 樂器保存의 넓이이었다. 肅宗 9년(1688) 3월에 祭器庫를 修築하였었다. 이 때의 祭器庫는 社稷署의 마당 안에 있었다.

새롭게 하기 위하여 庫間의 터를 고르는 중에 땅 속에서 古石磬 19매가 출현하였다. 임진왜란에 피해받은 것의 일부가 매몰되었다가 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國朝五禮儀」에 수록되어 있는 社稷壇圖의 登歌로 표기한 것은 祭儀를 진행하는 중에 雅樂을 아뢰는 자리를 나타낸 것이다.

雅樂을 아뢰는 일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한다. 奏樂만을 하는 軒歌와 詞를 아뢰는 登歌인데 迎神, 進饌, 文·武舞, 卬·終獻, 送神할 때엔 軒歌를 드리고 奠幣, 初獻, 徹盞豆시에는 登歌하여 아뢴다.

奏樂은 차례에 따라 여덟의 순으로 나누어 각각의 악장을 연주하게 마련이다. 먼저 仰神한다. 奏樂만으로 順安之樂을 연주한다. 奠幣하면서는 有詞한 肅安之樂을 登歌한다. 進饌 때는 雍安之樂으로 軒歌하고 初獻에는 壽安之樂을 아뢰면서 登歌한다. 다음으로 文舞退하고 武舞進에는 舒安之樂을 奏樂하고 이어 卬獻·終軒의 壽安之樂도 奏樂만 한다. 다음 차례가 徹盞豆인데 登歌하면서 雍安之樂을 아뢴다. 이어 送神이다. 順安之樂으로 奏樂만을 한다.

登歌時에 아뢰는 歌詞는 각각이다. 예컨대 徹盞豆시에는 다음과 같이 부른다.

謂地蓋厚品物咸享稼穡惟寶永觀厥成徹我盞豆祀事孔明纓以多福壽考攸寧

樂器庫도 神室과 마찬가지로 홀치마의 맛배지붕처럼 생겼다고 하겠으나 謙齊의 「社稷壇圖」에는 팔작지붕으로 표현되어 있다. 「五禮儀」의 樂器庫도 圖示된 모습으로 보아 맛배지붕 같지는 않다.

「社稷壇儀軌」의 「社稷署全圖」에 보면 壇의 동편 社稷署의 南쪽 中門 밖 마당에 따로 樂工廳이 있다고 하였다. 宗廟에도 樂工廳이 따로 있다. 正殿의 서

쪽에 있다. 지금도 그 遺構가 남아 있어 전체의 윤곽은 알 수 있는데 變形되어 제모습을 다 알아보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樂器庫는 純祖 3년(1803) 11월에 불에 탄 바 있었다.

祭器庫는 「社稷署儀軌」「社稷署全圖」에 安香廳 서편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國朝五禮儀」의 「社稷壇圖」에는 樂器庫의 북쪽 神廚의 北方에 宰牲亭과 나란히 있었던듯이 표시되어 있다. 英祖 25년(1749) 7월의 기록에 이에 대한 해명이 있다.

禮曹啓 社稷祭器櫛 今將營建 而即今祭器庫 在安香廳西 不但頽圯 地且專濕 以五禮儀圖 考見則壇西厨北 有祭器庫 而今則廢 而爲庶帳庫 其地勢之淨潔平鋪 與即今庫舍大有勝馬 依五禮儀式改建 於此處後 造成祭器櫛 甚合事宜從之

하였던 바가 있었다는 사실에서 옛터를 찾아 五禮儀에서처럼 祭器庫를 重建하고 祭器를 보존하는 櫛을 만들었음을 알아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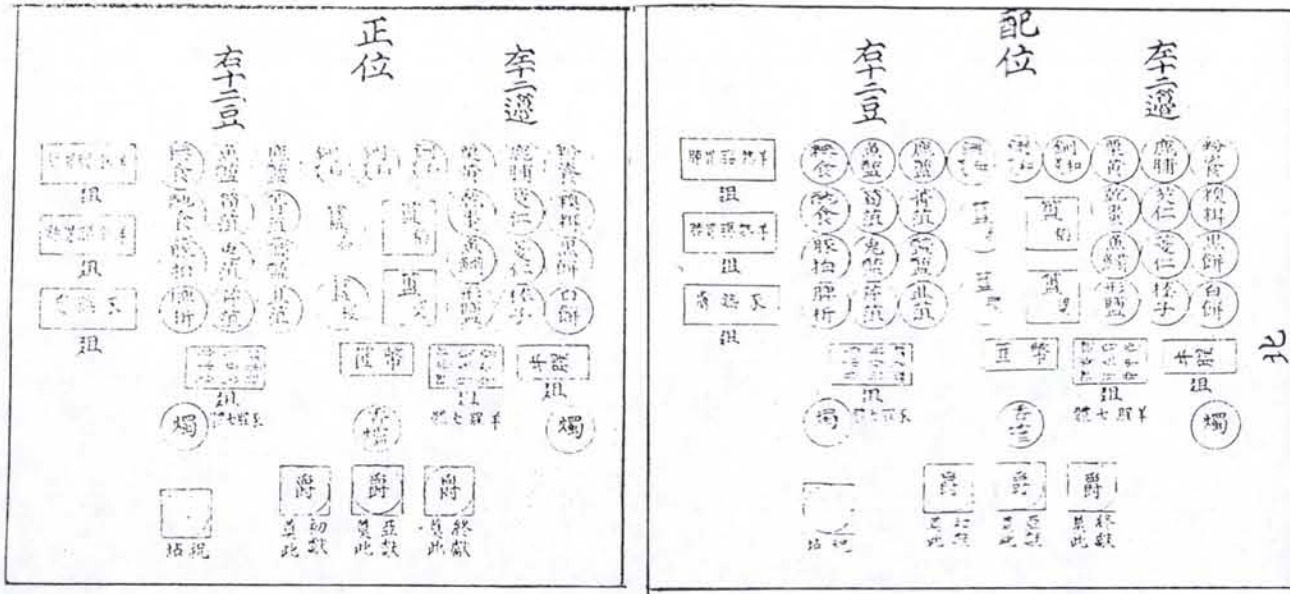
肅宗 9년(1683) 3월에 祭器庫를 수축한 바 있었다. 이 때의 祭器庫는 아직 社稷署의 安香廳 서쪽에 있었어서 「社稷署祭器庫」를 수축하였다고 표현하였다. 수축할 때 이 터전에서 古石磬 19매가 발견되었었다. 祭儀가 중심이 된 곳에서 祭器는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보존하는 건물은 그만큼 우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壇西의 祭器庫 위치는 그런 事體에 적합한 곳으로 여겨진다.

祭器庫에는 祭儀用의 각종 器物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社稷署儀軌」卷一 祭器條에 祭儀時 進設되는 祭器가 大祀일 때,

每一位 盞十二 豆十二 銅三 簋二 簋二 俎六 爵三 篚一

이라 하고 同書 卷首에는 「大享正配位饌實圖說」이 收載되어 있다. 거기에는 上記된 것 말고 香爐·燭·爵 등이 더 표시되어 있다.

이들 祭器에 담아 進設하는 祭物은 親祭와 祈告祭가 달랐는데 親祭 때엔 다음과 같은 제물이 소용되었다.



「社稷署儀軌」에 수록된 大享 正·配位 饌實圖說

每一位 飯四色 餅六色 醢四色 菹三色 果五色 脯五條 大口魚三尾 竹筍一
 豆鹽一 籩銅羹三器 牛羊豕生肉各一匣 薦俎三色各一匣 豚拍一 豆膊析
 一 豆酒三爵(太常志)

每一位란 國社之神을 正位한 것과 거기에 后土之神을 配位하고 또 國稷之神을
 正位하고 后稷之神을 配位한 四位에 각각 진설하는 祭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祭器도 그와 함께 네틀이 있어야 하였고 제수장만도 그만큼 많은 양을 마련하
 여야 되었다.

大祀를 잡숫는 社稷의 牲牢는 大牢를 썼는데 牛 한 마리 羊 한 마리 돼지 한
 마리가 정액이고 이에 羊 세 마리와 돼지 세 마리를 더 쓰기도 한다. 祈告祭
 뻬 돼지 한 마리만을 잡는다.

奉常寺에서는 쓰이는 제물의 재료를 공급해야 한다. 그 單子를 보면 다음과
 같다. 親祭 때와 祈告祭 때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본다. 親祭 때의 제물 單子
 이다.

粉糝餅 白米一斗八升. 糗糲餅 白米一斗六升. 兩餅入太 八升. 糝食 白米
 一斗二升. 八粘米 二升. 眞油 一升二合八勺. 醢食 白米二升. 入酒 二升.
 白餅 白米一斗六升. 黑餅 唐黍米二斗二升. 飯梗米 黍米 稷米 各一斗八升.
 粘粟米 二斗四升. 中脯 二貼. 大口魚 十二尾. 菱仁 芡仁 黃栗 榛子 大棗
 各六升. 青菹 芹菹 韭菹 各六升. 醴酒 十八瓶. 鹽竹筍 各六升. 鹿盤 盤
 盤 各六升. 兔盤 四口. 魚盤 四尾. 生薑 四兩八錢. 芥子 四合. 醋 二合八
 勺. 銅羹 十二器. 入菁根 三十六箇. 良醬 二升八合. 塩 一升二合. 醋
 一合二勺. 黑幣 四端. 五兩燭 十二丁. 若親祭則四兩燭 八丁. 五兩燭 四
 丁. 八兩燭 二丁. 照燭 一丁. 照燭 一丁. 照燈黃法蜜 六兩. 油 六合.

또 祭器庫에는 硯匣을 常置하여 두도록 하였다. 英祖32년 3월에 王命에 의
 하여 비치하기 시작하였다.

「社稷署儀軌」卷五 故事下 英祖三十二年 丙子三月條에 「教曰凡親押時以
 常時硯匣用之 非致敬之意 此後廟社及書房色 各造硯匣 一匣 上刻親押硯
 匣 廟社件常置於祭器庫 書房色常置於樓庫 廟社則親祭時以此待令」

라 하였다.

祭器庫도 三間이며 맞배의 지붕이라고 보인다. 「五禮儀」의 그림과 謙齊 筆의
 「社稷壇圖」에서도 맞배지붕으로 그렸다. 祭器庫는 지금도 여러 유례를 남기고
 있다. 各陵의 齋室에 祭器庫들이 부설되어 있다. 대략 三間이며 맞배지붕이다.
 三間 중 一間이 구들을 시설한 것도 있다. 나머지는 마루를 깔았고 板壁하고
 당판 문짝을 달기도 하였다. 丹青은 하지않은 것이 보통이다.

一郭內에는 神厨三間(五禮儀, 謙齊의 社稷壇圖에는 四間으로 묘사되어 있음)
 과 祭器庫와 규모와 지붕모양이 같은 宰牲亭이 더 있고 우물이 있다. 神厨는 지
 붕이 팔각지붕이어서 樂器庫와 거의 그 격이 대등하다. 「社稷壇圖」에는 謙齊가
 基址石을 세발대로 그렸고, 三級의 陛石이 二基 설치되어 있는듯이 하였다. 宰
 牲亭은 祭器庫와 大同小異하다.

우물은 「國朝五禮儀」社稷壇 圖說에 樂器庫·神厨·宰牲亭·祭器庫가 있는 일곽의 동편에 表示되어 있다. 「社稷署儀軌」의 「社稷署全圖」에서는 東門 안쪽에 우물이 있다고 표시하고 있다. 同書의 卷三 故事上의 正祖 十七年條에

正月親行祈穀大祭時 監察洪光一 以爲內井之水 如或乾涸 則預修外井 以備汲用者 自是西部修井官之責也

라고 있다. 內井 이외에 外井이 하나 더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政院啓本署 大小祭享時 內外井 通用事定奪

이라 하여 아주 內外井을 공용하기로 되었다. 그러나 이 外井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알 수 없는데 지금은 우물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7. 社稷署의 諸建物

「社稷署儀軌」에 「社稷署全圖」가 수록되어 있어 당시의 모습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지금은 安香廳이라고 보이는 建物이 派出所 뒷편에 자리잡고 있으며 公園管理事務所로 사용되나 살림집으로도 利用되어 原形을 잃어가고 있다. 이 建物은 이전된 것이라고 傳한다.

社稷署에는 都提調 一員, 提調 一員, 令 一員, 參奉 二員, 書員 一人, 庫直 一名, 守僕 八名, 使令 五名, 軍士 七名이 종사하고 있었다.

太祖 元年에는 社稷壇直을 二人 두었었고, 肅宗 三十年에는 參奉을 直長과 奉事로 바꾸었고, 英宗 元年에는 奉事를 令이라 하고 文臣으로 差下하였다. 哲宗 年間に 작성되었다고 하는 「官案」에 의하면 社稷署는 宗廟署와 마찬가지로 從五品으로 禮曹 소속인데 正一品의 都提調 一, 提調 從二品과 令 一員, 從五品이 정원되어 있었다 하고 社稷署는 그 소임이 「灑掃壇壝」이었으며 仁達坊의 壇北

에 官衙를 마련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社稷署는 神北門 밖에 있다고 하였다. 正門인 東門과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하였으나 正門의 移建으로 이제 옛모습은 찾을길 없게 되었다.

社稷壇의 表門 즉 正門 밖에 따로 길가에 臺石이 없어 下馬하는 사람들이 문앞에 다 이르러서야 말에서 내렸다.

不敬한 일이므로 闕門의 例에 따라 設石함이 마땅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英宗二十四年戊辰三月 教曰 曾聞相臣陳達廟門外 無路臺石下馬於廟門階砌云 其涉不敬依闕門例 設石廟門 若此社門 可知社門 若無一體舉行殿門亦爲設石定其界限

이런 모습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謙齊 鄭歆이 그린 社稷壇圖에 의하면 北門으로 보이는 外牆의 三門 앞으로는 下馬碑 등의 臺石이 보이지 않는다.

여기의 大門은 지금의 東門과는 그 위치가 다르다. 오히려 東門은 보이지 않고 壇의 北方에 三間으로 보이는 대문이 보인다.

三間의 平三門으로 맞배지붕에 외벌대기단 위에 다듬은 초석이고 圓柱를 세웠다. 문짝은 間柱를 세운 중앙 柱列에 문얼굴을 만들고 板扇을 달았다. 좌우에 기와 엮은 맞담도 이 線列에 일치되어 있다.

맞배지붕의 용마루와 내림마루에는 樑上에 灰를 바른 양성이다. 지금의 正門엔 양성이 없어 옛과 지금이 달라진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正門은 몇 번 자리를 옮겼다.

社稷署 관아의 중심건물은 安香廳이다. 「儀軌」에서는 四間建物로 南向한듯이 그려져 있다. 이것만으로 현재의 建物이 안향청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나 일단 安香廳으로 보고 고찰함이 유익하겠다. 建物의 형상과 實測値는 現況(遺構)편에 상술하고자 한다.

安香廳의 앞마당에는 잘 생긴 소나무가 한 그루 자라고 있었다. 이를 두고 肅宗은 「社稷 安香廳庭前喬松記」라는 글을 지었다.

辛酉之夏五月十有八日 予憫旱躬自禱雨于 社稷時 天氣酷熱帳設不便 勉從大臣之請御于安香廳用權宜也庭前喬松不知幾百年 而亦不知其何人所種也 一根盤結四枝 遠揚隱若神龍之蟠伏 猛虎之蹲踞 夜月初昇樹影滿地 真可謂一時之奇觀也

또 「詠社稷 安香廳 庭松」의 詩가 한 수 더 있고 英祖의 御製인 「社稷 安香廳 庭松頌」이란 글도 있다.

소나무 東西에 역시 四間式인 月廊이 儀軌에 그려져 있다. 소나무 南쪽으로는 續面壁이 간격을 두고 排設되어 있고 그 南쪽에 中門과 左右 月廊이 造營되어 있다.

中門은 솟을문이고 左右 月廊은 四間式이다. 西쪽 月廊 끝에는 欄간이 부설되어 있는데 그림에서는 약간 규모가 적은듯이 나타난다.

中門에서 安香廳까지에 御路가 시설되었는데 續面壁과 소나무를 피하도록 여러번 꺾이어 있다.

安香廳의 西便에 遮帳庫와 祭器庫가 있다. 祭器庫는 제자리 찾아 遷西로 옮겼으므로 이 建物は 없어졌다고 보아야 옳겠다.

樂工廳과 部將直所는 따로 경영되어 있었다. 部將廳은 英祖18年(1742) 9월에 지금 자리로 옮긴다.

本署啓 本署部將廳 在於壁後 與大門相背 凡人出入不得看檢 令該曹 移建於門傍何如 從之

하였음에서 알 수 있다. 그 규모와 형상에 대한 기록은 따로 없다.

8. 其他의 建物

「社稷署儀軌」에는 壇西의 一郭이 「五禮儀」의 그것처럼 建物 四棟이 整齋하여 있지 않고 東西의 兩門과 六棟의 建물이 흩어져 있다. 樂器庫·宰牲亭·典祀廳·雜物庫·守僕房이 중심 建物이다.

肅宗20年(1694) 7월에 社稷의 典祀廳과 左右 執事廳을 重修한 바 있었다. 여기의 執事廳은 社稷의 소속이니 숙종27年(1701)에 安香廳을 重建하면서 崩安하였던 香祝을 西邊의 執事廳으로 移安하였음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社稷署全圖」에는 執事廳이 보이지 않는다.

執事廳 以外에도 下輩들의 起居處가 더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더 많은 建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同工事에서는 「安香廳 既兼 御齋室而新造」하였다 하였음으로 임금이 머물 수 있는 전각도 있었다고 보인다.

숙종28年(1702) 11월에 部將直所가 新建된다. 이것은 正門 옆으로 移建되어 部將廳이 된다(英祖18年).

숙종36年(1710) 윤 7월에 執事廳이 改建된다. 나머지 建物에 대하여는 별다른 知見이 없다.

9. 朝鮮朝 歷代 社稷 沿革考

- 太祖 2 年(1393) 2 月10日 新都의 宗廟·社稷 등 形勢地圖 만들 (太祖實錄 卷三)
- 太祖 3 年(1394) 11月 2 日 上이 宗廟·社稷之地를 살피고 工作를 열다. (五儀 卷三)
- 太祖 4 年(1395) 1 月29日 營社稷壇 (太祖實錄 卷七)
- 太祖 4 年(1395) 2 月27日 上辛西峰하여 築造하는 社稷壇을 내려다 보다. (太祖實錄 卷七)
- 太祖 4 年(1395) 고려시대의 樂章으로 社稷에 祭儀하고 있으므로 고치기로 하다 (增補文獻備考 卷五十四).
- 太宗 5 年(1405) 禱雨 社稷 (文獻備考).
- 太宗 6 年(1406) 命修治 社稷壇, 守護人을 두게 하다 (文備).
- 世宗 15 年(1433) 初用 雅樂하게 되어서 女樂은 중지하다 (社儀 卷三).
- 世祖 1 年(1455) 8 月 親祭 社稷壇 (國朝寶鑑)
禮儀使 導殿下하여 詣版位하면 啓請行事한다고 야리다 (社儀 卷三)
- 成宗 2 年(1471) 親祭 社稷 (文獻備考).
- 太宗 14 年(1414) 壇의 南·西·北쪽은 山岡을 限界로 하고 東쪽은 140步를 限하여 築牆함 (서울市史古蹟편).
- 燕山君 4 年(1498) 6 月 垣牆이 低微頽圯하여 修築키로 함 (서울市史古蹟편).
- 世宗實錄 卷148 京都 漢城府, 周垣 樹之以松 (담 돌레에 소나무를 심다).
- 世宗 8 年(1426) 6 月 社稷署를 설치하여 관리하게 하다.
- 宣朝 3 年(1570) 親祭 社稷·祈雨 (國朝寶鑑)
- 宣朝 25 年(1592) 4 月 上이 파천하면서 廟社主를 먼저 떠나보내 松京 淸穆殿에 모시게 하다 (社儀).
- 宣朝 25 年(1592) 5 月 창황히 御駕 따르다가 廟社主를 두고 가다 (社儀).
- 宣朝 25 年(1592) 6 月 뒤늦게 平壤에 도착한 廟社主를 御駕와 나누어 世子가 모시고 博川으로 가게 하다 (社儀 卷三).

- 宣朝 26 年(1593) 10 月 御駕還都·廟社主는 貞陵洞 沈連源家에 임시 봉안하다 (社儀).
- 壬辰倭亂時 壇만 있고 其他 門架 垣牆 등은 거의 殘破됨.
- 宣祖 30 年(1597) 10 月 丁酉재란으로 일시 黃海道 遂安으로 移安하였던 廟社主가 돌아옴으로 임금이 친히 興仁門에 나아가 모셔드리다 (國朝寶鑑·文獻備考)
- 仁祖 14 年(1636) 12 月14 日 淸兵이 쳐들어옴에 奉廟社主로 하여 入江華하다 (社儀 卷三).
- 仁祖 15 年(1637) 1 月29 日 權安 廟社主 하니 昌慶宮의 時敏堂(東宮書筵所) 에 모시다. 社稷의 位版을 잃었다. 改造의 議論이 있다 (社儀 卷三).
- 仁祖 15 年(1637) 4 月初 2 日 修理都監·社稷位版 四位 改造 (社儀 卷三).
- 仁祖 15 年(1637) 廟社主 洗木及改題吉日 五月初四日卯時
廟社主 奉移吉日 同月初六日卯時 (宗廟儀軌)
- 仁祖 17 年(1637) 5 月 大旱 親祈雨于 社稷, 明日乃雨 (文備 54).
- 孝宗 1 年(1650) 6 月 旱蝗, 親祈雨 於社壇. 黑布, 玉帶, 黑靴로 行禮하다 (國朝寶鑑).
- 孝宗 2 年(1651) 5 月 禱雨于 社稷壇 是日大雨 (國朝寶鑑)
- 孝宗 10 年(1659) 3 月 神室 雨漏處, 簷簾修改 (社儀 卷四)
- 孝宗 10 年(1659) 7 月 正殿 北簷 雨漏處 修改 (社儀 卷四).
- 顯宗 1 年(1660) 6 月 紅箭門 修改 (社儀 卷四).
- 顯宗 1 年(1660) 7 月 壇北牆階砌 修改 (社儀 卷四).
- 顯宗 2 年(1661) 守僕을 6 名에서 8 名으로 증원하다 (社儀 卷三).
- 顯宗 2 年(1661) 4 月 神位方席 修改 (社儀 卷四).
- 顯宗 3 年(1662) 正月 神室 簷簾 修改 (社儀 卷四).
- 顯宗 4 年(1663) 4 月 神位櫺 改漆 (社儀 卷四).
- 顯宗 7 年(1666) 3 月 神位櫺 塗排 及 改漆 (社儀 卷四).
- 顯宗 7 年(1666) 7 月 神室 龍頭 修改 (社儀 卷四).
- 顯宗 9 年(1668) 祈雨于 社稷 (社儀 卷四).

- 현종11年(1670) 윤 2月 神室 牆垣 及 臺石 修改 (社儀 卷四).
- 현종12年(1671) 3月 神室 雨漏處 修改 (社儀 卷四).
- 현종13年(1672) 4月 神室 地衣 及 奉安櫬 修改 (社儀 卷四)
- 현종13年(1672) 10月 神室 竈簾 修改 (社儀 卷四)
- 현종14年(1673) 4月 神室 仰壁 修改 (社儀 卷四)
奴婢 15口를 劃給하다 (社儀 卷三)
- 숙종 1年(1675) 6月 神室 地衣 修改 (社儀 卷四)
- 숙종 2年(1676) 9月 神座 方席 修改 (社儀 卷四)
- 숙종 3年(1677) 3月 神室門 板箭改以 細箭合閣 (社儀 卷四)
- 숙종 3年(1677) 7月 神室 仰壁 修改 (社儀 卷四)
- 숙종 4年(1678) 10月 神室 竈簾 修改 (社儀 卷四)
- 숙종 5年(1679) 11月 神室 竈簾 修改 (社儀 卷四)
- 숙종 6年(1680) 4月 壇門 甌牆 修改 (社儀 卷四)
- 숙종 6年(1680) 7月 神室 仰壁 及 地衣 修改 (社儀 卷四)
- 숙종 6年(1680) 8月 神室 牆垣修改 (社儀 卷四)
- 숙종 7年(1681) 5月 親禱雨于 社稷 (社儀 卷四)
- 숙종 7年(1681) 6月 神室 竈簾 及 樂器庫 修改 (社儀 卷四)
- 숙종 8年(1682) 6月 神室 椽頭 修改 (社儀 卷四)
- 숙종 9年(1683) 3月 社稷署 祭器庫 修築(得石磬19枚) (社儀 卷三)
- 숙종 9年(1683) 8月 神室 丹青 修改 (社儀 卷四)
- 숙종10年(1684) 9月 神室 竈簾 及 壇牆 修改 (社儀 卷四)
- 숙종11年(1685) 2月 神室 仰壁 修改 (社儀 卷四)
- 숙종 9年(1683) 正月 大臣을 보내어 사직에서 처음으로 祈穀祭 드림 (增補文備 54권)
- 숙종11年(1685) 3月 宗廟 南別殿의 例에 따라 除草軍을 每月十名 定送하고
掃雪軍은 때에 따라 加定하기로 한다 (社儀 卷三)
- 숙종11年(1685) 4月 神室 龍頭 及 瓦子 修改 (社儀 卷四)
- 숙종12年(1686) 正月·10月 神室 竈簾 修改 (社儀 卷四)
- 숙종12年(1686) 7月 上 親禱雨于 社稷 (社儀 卷四)

- 숙종13年(1687) 7月 牆垣 修改 (社儀 卷四)
- 숙종13年(1687) 11月 神室 竈簾 修改 (社儀 卷四)
- 숙종14年(1688) 5月 神室 東西椽 修改 (社儀 卷四)
- 숙종14年(1688) 윤 7月 北神門 修改 (社儀 卷四)
- 숙종14年(1688) 8月 神穢內 塗排 修改 (社儀 卷四)
- 숙종14年(1688) 10月 神位版方席 及 室內地衣 修改 (社儀 卷四)
- 숙종15年(1689) 4月 神位穢 及 神室丹青 修改 (社儀 卷四)
- 숙종15年(1689) 7月 神室 仰壁 修改 (社儀 卷四)
- 숙종17年(1691) 윤 7月 神室 雨漏處 修改 (社儀 卷四)
- 숙종18年(1692) 正月 神室 丹青 修改 (社儀 卷四)
- 숙종18年(1692) 2月 神室 內牆 修改 6月 神室 雨漏處 修改
5月 紅箭門 補修 7月 神室 雨漏處 修改 (社儀 卷四)
- 숙종20年(1694) 10月 神室 改建 (社儀 卷四)
- 숙종21年(1695) 4月 行祈雨祭 5月 行祈雨祭 6月 行祈雨祭
12月 兩壇 階砌紅箭門柱灰 及 神室 竈簾 修改 (社儀 卷四)
- 숙종22年(1696) 正月上 親祈穀于 社稷 (社儀 卷四)
- 숙종23年(1697) 4月上 親禱社稷 (社儀 卷四)
- 숙종27年(1701) 2月 神室 竈簾 修改 (社儀 卷四)
- 숙종27年(1701) 5月上 詣 社稷兩壇 行祀 (義禁府 虎頭閣處囚) (社儀 卷四)
6月 神室 雨漏處 修改 7月 安廳重建
10月 神室 竈簾 修改 (社儀 卷四)
- 숙종28年(1702) 正月 神室 樑上塗灰 修改
2月上 親享于 社稷 6月 神室 雨漏處 修改
7月 室內地衣 修改 10月 神室 竈簾 修改 (社儀 卷四)
- 숙종29年(1703) 2月 神室 樑上塗灰 修改
5·6月 神室雨漏處 修改 9月 神室蓋瓦 修改 (社儀 卷四)
- 숙종30年(1704) 4月 神室龍頭 修改 7月 神室樑上塗灰 及 丹青 修改
10月 室內 地衣 修改 (社儀 卷四)

- 今宗31年(1705) 7月 神位床卓 修改 神室竈簾 修改 (社儀 卷四)
- 今宗32年(1706) 2月 壘門 修改 6月 神室雨漏處 修改
7月 神室樑上塗灰 修改 10月 神室竈簾 修改 (社儀 卷四)
- 今宗33年(1707) 4月 神室樑上塗灰 修改 7月 神室雨漏處 修改 (社儀 卷四)
11月 神位櫬 修改 (社儀 卷四)
- 今宗34年(1708) 2月 上親享于 社稷 3月 神室西墻 修改
7月 神室塗灰 修改 12月 神室竈簾 修改 (社儀 卷四)
- 今宗35年(1709) 7月 神室雨漏處 修改 (社儀 卷四)
- 今宗36年(1710) 5月 壇墻修補 卍 7月 執事廳改建, 神室雨漏處 改修
8月 上親享于社稷 (社儀 卷四)
- 今宗37年(1711) 5月 神室雨漏處 修改 7月 神室竈簾 修改
8月 神室樑上塗灰 修改 (社儀 卷四)
- 今宗38年(1712) 正月 神室竈簾 修改 2月 神門修補 4月 神室塗灰 修改
5月 行祈雨祭 9月 神室竈簾 修改 (社儀 卷四)
- 今宗39年(1713) 正月 神室塗灰 修改 6月 神室雨漏處 修改
8月 神室竈簾 修改 (社儀 卷四)
- 今宗40年(1714) 正月 神室樑上塗灰 修改 (社儀 卷四)
- 今宗41年(1715) 3月 神室塗灰 修改 6月 神室雨漏處 修改
12月 神室竈簾 修改 (社儀 卷四)
- 今宗42年(1716) 3月 神室樑上塗灰 修改 6月 神室樑上塗灰 修改 (社儀 卷四)
- 今宗43年(1717) 5月 室內 地衣 修改 (社儀 卷四)
- 今宗44年(1718) 5月 神室樑上塗灰 修改 7月 神室墻垣 修改
10月 神室竈簾 修改 (社儀 卷四)
- 今宗45年(1719) 3月 神室樑上塗灰 修改 11月 神室竈簾 修改 (社儀 卷四)
- 今宗46年(1720) 3月 北神門 修改 12月 神室竈簾 修改 (社儀 卷四)
- 景宗 1年(1721) 6月 上親禱雨于 社稷 (社儀 卷四)
- 景宗 2年(1722) 2月 神室樑上塗灰 修改 4月 早 親禱雨于社稷 (國朝寶鑑)
- 景宗 3年(1723) 2月 上親享于社稷 11月 神室竈簾 修改 (社儀 卷四)

- 景宗 4年(1724) 2月 東紅箭門 修改 4月 東南壘門 修改
5月 神室雨漏處 修改 12月 神室竈簾 修改 (社儀 卷四)
- 英祖 1年(1725) 正月 神室雨漏處 及 竈簾修改 2月 東邊灰墻 修改 (社儀 卷四)
7月 上親禱于社稷 (國朝寶鑑)
- 英祖 3年(1727) 正月 上親行祈穀祭于社稷 (社儀 卷四)
- 英祖 4年(1728) 2月 神室竈簾 修改 5月 壘門改建 6月 神室雨漏處 及 竈簾
修改 神室樑上塗灰 修改 7月 北壘門修改 11月 王世子 薨逝
告文祭 (社儀 卷四)
- 英祖 6年(1730) 6月 壘門修補 敬純王后 昇遐告文祭
7月 祈雨祭 12月 神室竈簾 修改 (社儀 卷四)
- 英祖 9年(1733) 2月 社稷壇北 來脉上斗 人家 十戶 毀撤
5月 神室樑上塗灰 及 位版紙匣 修改 7月 神室雨漏處 修改
12月 神室竈簾 修改 (社儀 卷四)
- 英祖10年(1734) 正月 上親行 祈穀祭于社稷 (國朝寶鑑)
- 英祖12年(1736) 7月 神室雨漏處 修改 (社儀 卷四)
- 英祖13年(1737) 8月 神室樑上塗灰 修改
- 英祖13年(1737) 11月 壇墻垣外 山脉頽缺處 補築 (社儀 卷三)
- 英祖14年(1738) 正月 上親祈穀于社稷 (社儀 卷四)
- 英祖15年(1739) 5月 久旱 上親禱社稷 (國朝寶鑑) 神室竈簾 修改
6月 神室雨漏處 修改 11月 神室竈簾 修改 (社儀 卷四)
- 英祖16年(1740) 正月 上親祈穀于社稷 3月 神室雨漏處 及 竈簾修改
6月 室內地衣蘆簾(여짐) 修改
10月 神室前簷蓋瓦 及 門隻修補
- 英祖17年(1741) 3月 神室竈簾 及 紅箭門 門隻修改 5月 神室雨漏處 及 東壘
門, 北神門修改 10月 神室女防草瓦 及 竈簾修改 (社儀 卷四)
- 英祖18年(1742) 3月 神位奉安櫬內 塗排 及 竈簾修改 6月 行祈雨祭
7月 神室樑上塗灰 及 雨漏處修改 10月 神室樑上女夫防草瓦
位版紙匣 及 竈簾修改 (社儀 卷四)

- 英祖18年(1742) 8月 上親享于社稷 (社儀 卷四)
- 英祖19年(1743) 3月 神室竈簾 及 北神門門隻修改 ㄴ 4月 上親禱雨于社稷
5月 北神門修改 6月 神室雨漏處 樑上塗灰 及 竈簾修改
(社儀 卷四)
- 英祖20年(1744) 神室樑上塗灰 及 竈簾修改 6月 神室雨漏處 及 西紅箭門 修改
7月 灰牆修改 8月 神室雨漏處 及 竈簾 (社儀 卷四)
- 英祖21年(1745) 3月 神室西內牆崩頽 4月 西牆修改 神室雨漏處 及 南紅箭門
修改 神室內牆修改 8月 神室樑上塗灰 及 西牆修改 告由
(社儀 卷四)
- 英祖22年(1746) ㄴ 3月 東紅箭門修改 4月 神室丹青修改 7月 神室南牆崩頽
同月 南牆修改 及 國稷神位床卓修改 (社儀 卷四)
- 英祖23年(17)) 5月 神室塗灰修改 11月 神室樑上塗灰修改
12月 室內地衣 及 北神門修改 (社儀 卷四)
- 英祖24年(1748) 4月 神室樑上塗灰 修改 (社儀 卷四)
- 英祖25年(1749) 3·6月 神室雨漏處修改 9月 神門西挾梨木修改
10月 神床上所排席修改 (社儀 卷四)
- 英祖26年(1750) 2月 神室竈簾修改 3月 神室樑上塗灰修改 4·7月 神室雨漏
處修改 10月 神室竈簾 及 壇門修改 (社儀 卷四)
- 英祖27年(1751) 3月 南壇門灰牆修改 神室西牆崩頽 4月 神室西牆 及 樑上塗
灰修改 ㄴ 5月 神室龍頭頽落
6月 神室龍頭 及 雨漏處修改 (社儀 卷四)
- 英祖29年(1753) 5月 早 上親禱雨于社稷 7月 神室龍頭修改
8月 神室西內牆 南灰牆修改 10月 神室竈簾修改 (社儀 卷四)
- 英祖30年(1754) 10月 神室雨漏處 及 竈簾修改
11月 西紅箭門修改 (社儀 卷四)
- 英祖31年(1755) 9月 神室竈簾修改 (社儀 卷四)
- 英祖32年(1756) 3月 神室雨漏處 及 屋上防草瓦修改
8月 神室樑上塗灰 (社儀 卷四)

- 英祖34年(1758) 4月 神室樑上塗灰修改 7月 神室雨漏處修改
8月 神室西牆 及 竈簾修改 (社儀 卷四)
- 英祖35年(1759) ㄴ 6月 神室西內牆 及 雨漏處 修改 早 上親禱雨于社稷
10月 神室竈簾 及 南北壇門修改 (社儀 卷四)
- 英祖36年(1760) 6月 北神門改建 早 上親禱雨于社稷
8月 神室女夫防草瓦修改 10月 神室竈簾修改 (社儀 卷四)
- 英祖38年(1762) 6月 早 上親禱雨于社稷 9月 神室樑上塗灰修改 (社儀 卷四)
- 英祖39年(1763) 2月 神室雨漏處 修改 4月 神室龍頭修改 (社儀 卷四)
- 英祖40年(1764) 3月 神室雨漏處 及 灰牆修改 5月 早 上親禱雨于社稷
(社儀 卷四)
- 英祖41年(1765) 8月 神室雨漏處修改 5月 神室瓦子墮落及木只盖板修改
(社儀 卷四)
- 英祖42年(1766) 3月 西壇門修改 11月 神室樑上塗灰修改 (社儀 卷四)
- 英祖 3年(1767) 4月 神室雨漏處 及 竈簾修改
7月 北壇門修改 (社儀 卷四)
- 英祖44年(1768) 2月 神室雨漏處 及 竈簾修改 11月 神室地衣修改 (社儀 卷四)
- 英祖45年(1769) 4月 壇壇修改 7月 神室雨漏處 及 竈簾修改 (社儀 卷四)
- 英祖46年(1770) ㄴ 5月 神室雨漏處修改 6月 神室鋪陳 及 竈簾修改 (社儀 卷四)
- 英祖47年(1771) 3月 北神門修改 5月 神室瓦子墮落 修改
7月 行祈雨祭 (社儀 卷四)
- 英祖48年(1772) 5月 行祈雨祭 12月 神室竈簾修改 (社儀 卷四)
- 英祖49年(1773) 6月 行祈雨祭 7月 神室雨漏處修改
- 英祖50年(1774) 5月 行祈雨祭 6月 神室雨漏處修改 (社儀 卷四)
- 英祖51年(1775) 8月 神室竈簾修改 ㄴ 10月 神室樑上塗灰 及 兩漏處修改
(社儀 卷四)
- 英祖52年(1776) 6月 神室西內牆頽圯 修補 8月 神室竈簾修改 (社儀 卷四)
- 정조 1年(1777) 2月 東壇門修改 5月 早 上親禱雨于社稷
7月 神室雨漏處修改 (社儀 卷四)

- 정조 2年(1778) 윤 6月 神室南牆崩頽修改 12月 上親享于社稷 (社儀 卷四)
- 정조 3年(1779) 正月 神室簷簾 及 望座位修改 上親祈穀于社稷
2月 南壇門修改 8月 神室盖瓦 修改 (社儀 卷四)
- 정조 4年(1780) 正月 上親祈穀于社稷 7月 神室雨漏處修改
12月 神室簷簾修改 (社儀 卷四)
- 정조 5年(1781) 正月 上親祈穀于社稷 9月 神室壇垣 及 簷簾修改 (社儀 卷四)
- 정조 6年(1782) 正月 祈穀祭前一日 上親省牲器于社稷
6月 行祈雨祭 (社儀 卷四)
- 정조 7年(1783) 正月 上親祈穀于社稷 12月 神室簷簾修改 (社儀 卷四)
- 정조 8年(1784) 正月 上親祈穀于社稷 12月 神室簷簾修改 (社儀 卷四)
- 정조 9年(1785) 正月 上親祈穀于社稷 12月 神室簷簾修改 (社儀 卷四)
- 정조 10年(1786) 正月 上親祈穀于社稷 12月 神室簷簾修改 (社儀 卷四)
- 정조 11年(1787) 正月 上親祈穀于社稷 7月 神室雨漏處修改
12月 神室簷簾修改 (社儀 卷四)
- 정조 12年(1788) 正月 攝行祈穀大祭 8月 神室簷簾修改 (社儀 卷四)
- 정조 13年(1789) 正月 上親祈穀于社稷 12月 神室簷簾修改 (社儀 卷四)
- 정조 14年(1790) 正月 攝行祈穀大祭 12月 神室簷簾修改 (社儀 卷四)
- 정조 15年(1791) 正月 上親祈穀于社稷 10月 北壇門修改
12月 神室簷簾修改 (社儀 卷四)
- 정조 16年(1792) 正月 上親祈穀于社稷 5月 北神門修改 6月 神室西內牆頽圯
7月 修改 8月 神室簷簾修改 (社儀 卷四)
- 정조 17年(1793) 正月 上親祈穀于社稷 12月 神室簷簾修改 (社儀 卷四)
- 정조 18年(1794) 正月 上親祈穀于社稷 行稱慶告由祭 7月 行祈雨祭
8月 西壇門 及 北神門修改 12月 神室簷簾修改 (社儀 卷四)
- 정조 19年(1795) 正月 上親祈穀于社稷 行稱慶告由祭
12月 神室簷簾修改 (社儀 卷四)
- 정조 20年(1796) 正月 上親祈穀于社稷 12月 神室簷簾修改 (社儀 卷四)
- 정조 21年(1797) 正月 攝行祈穀大祭 12月 神室簷簾修改 (社儀 卷四)

- 정조 22年(1798) 6月 神室龍頭墮落 7月 修改 (社儀 卷四)
- 정조 24年(1800) 正月 上親祈穀于社稷 (社儀 卷四)
- 순조 1年(1801) 8月 神室簷簾修改 (社儀 卷四)
- 순조 2年(1802) 2月 東南北壇門修改 8月 西壇門 及 北神門修改 (社儀 卷四)
- 순조 3年(1803) 2月 神室簷簾修改 11月 樂器庫失火 (社儀 卷四)
- 순조 4年(1804) 2月 上親享于社稷 (社儀 卷四)